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 변경 '일석 삼조'

박용근 도의원 "예산 절감·산업연구용지 등 매립비용 절감·개발 가능 등 효과"



장소를 변경하면 동시에 준설과 매립 비용을 절감하고, 산업연구용지 등 육지생태 개발이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 준설비용이 투입되고, 기간 만료 후 다시 산업연구용지 등 육지생태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투입된다며 수상태양광 설치

내(湖内)에서 준설해 조달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민경강과 동진강 유역에서 흘러내리는 토사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규제 탄력조정 필요"

"전북, 민식이법 시행 이후 안전 위한 사업들 시행돼"



행했고 법 시행 이전에 비해 획기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염 의원은 "전라북도의 경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 염영선 도의원

현황으로 보면 2017~2019년에는 3년간 총 27대가 설치된 반면 2020~2022년 8월까지 총 87대가 설치돼 약 3배 증가했다.

/김경수 기자

## 교통약자 여객선 이용 '그림의 떡'

작년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37.8%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12.3%

민주 윤준병 의원 "설치율 향상 지원대책 마련 나서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 있는 여객선은 총 164척이었다.

제, 제주지역(제주지방해양수산청, 9척)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47.4%로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반면, 마산지역(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27.3%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이러 윤 의원은 "특히 여객선은 공공교통·대중교통의 한 축으로서 도 서지역 주민과 섬 관광객의 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교통약자 증대 및 해양관광 확대에 대응해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서육·김흥희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 "망신주기 기획작품"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이 서육 전 국방부 장관과 김흥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달아두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 '정치보복을 위해 안보를 거둬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명예를 이는 분들이다.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도주할 일도 없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뉴스시스

## 진보당 도당 "고금리 이자장사, 이제 그만"

"전북은행, 7월 예대금리차 6.33%로 부산은행보다 7배 높아 금융상품 가입 강요 '쪼기' 행위도 대구은행 다음으로 많아"

7월 시행된 예대금리차공시제도에 서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이 전국은행 중 가장 큰 예대금리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정치권에서 금리인하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오은미)은 18일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시대에 서민들은 빚을 내서 빚을 갚은 악순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중 은행과 정유사들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얻고 있고 특히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이 전국은행 중 가장 고금리로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7~8월 발표된 은행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전북은행의 7월 가계 예대금리차는 6.33% 포인트로 최저인 부산은행(0.82%)보다 7.72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8월에는 5.68%로 소폭 하락했으나(5.68%) 여전히 시중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당은 "전북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틀어 최고의 이자장사를 펼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빅스텝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 틈을 악용해 예대금리차 마진,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은미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진보당 전북도당 당원들이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강성희 민생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도당은 "전북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쪼기' 행위도 대구은행 다음으로 많다"며 "한국은행의 빅스텝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 틈을 악용해

금리차 종단을 추구하기 위해 '전북은행 대출금리 인하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당은 "전북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서명운동, 전북은행 본점과 지점에서의 1인시위와 추후 정당연설회도 진행해 '서민을 울리는 고금리 이자장사'를 중단시키고 전북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회가 열렸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8일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활동, 촉구 건

의,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앞으로 특위의 주요 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동계획안을 확정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김경수 기자

보다 나은 KFPA

축! 전주매일 창간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 대한민국 농어촌의 희망을 경영합니다

농어촌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우리 농어촌. 어제의 농어촌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오늘의 농어촌이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듭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생산지원  
농어촌농수산물유통관리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체 및 해외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